

음주 동기, 문제음주 및 음주 가족력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기독교 상담학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음주 행동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이성과의 데이트 경험이 있는 440명의 대학생이었는데, 남학생이 184명이고 여학생이 256명이었다. 이들의 연령 분포는 17세에서 30세까지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0.08세($SD=1.89$)였다. Straus의 갈등 척략척도(CTS), 알코올장애분류검사(AUDIT), Cooper의 음주동기 설문지(DMQ), 및 음주가족력목록(IFAU)을 참여자에게 주었다. 주요 통계분석은 2(성별)×2(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 이원변량분석이었다. 분석 결과, 일주일에 한번 이상 술을 마시는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데이트를 하면서 이성친구에게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높았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음주에 더 동기화가 되어 있었으며,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대처동기를 가지고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문제음주, 즉 위험음주, 의존음주, 유해음주를 더 하고,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문제음주를 더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음주 가족력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의존음주와 유해음주에는 성별과 데이트 폭력 가해 여부의 유의한 이원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다.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데이트 폭력 가해 여부에 따른 의존음주 혹은 유해음주의 차이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주요어 : 음주 동기, 문제음주, 음주 가족력, 데이트 폭력

* 본 논문은 2003년 7월 The 5th Conference of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에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 : 서경현, (139-742)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삼육대학교 기독교상담학과, E-mail : khsuh@syu.ac.kr

한국에서도 이성을 사귀면서 행하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바 있다(서경현, 2002;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서경현, 이경순, 2002; 서경현, 이영자, 2001; 중앙일보, 2001년 9월 14일자). 대학생들은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자주 하는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는데(Haberman, 1994), 데이트 폭력은 본인과 상대방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행동이다(Levy, 1990). 1980년대부터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변인들이 많이 탐구되고 논의 되어 왔으나 아직도 그런 변인들 중에 특정 변인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Charkow & Nelson, 2000).

Riggs와 O'Leary(1989)가 주장한 데이트 폭력의 사회학습이론은 지금까지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변인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가장 많이 주목받아 왔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가까운 관계에서의 호전성,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태도, 과거의 폭력 가해 경험, 성격, 자극에 대한 민감성, 스트레스, 음주, 상대방의 공격적 행동, 갈등의 존재 여부, 관계에 대한 만족, 폭력의 이득에 대한 기대 등이 데이트 폭력에 가장 영향을 준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이 가정폭력 경험, 즉 부모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을 목격한 경험 혹은 부모로부터의 폭력을 당한 경험이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아 왔는데, 이 변인들과 관련해서도 계속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서경현 외, 2001; 서경현, 이영자, 2001; Comins, 1984; Foo & Margolin, 1995; Foshee, Bauman, & Linder, 1999; O'Keefe, Brockopp, & Chew, 1986; Riggs, O'Leary, & Breslin 1990), 어떤 연구(Kaufman & Zigler, 1987)에서는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을 한 사람들의 30% 정도만이 부모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나 부모로부터의 폭력

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학습이론에서 데이트 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또 다른 변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음주는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Farrington, 1998). 음주가 부부간의 폭력(Hamilton & Collins, 1981; Coleman & Straus, 1983; Hotaling & Sugarman, 1986; Frieze & Browne, 1989), 그리고 아동학대(MacMurray, 1979; Famulago, Stone, Barnum, & Wharton, 1986) 등 가정폭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간혹 여성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Jewkes, 2002), 특히 남성이 만취한 상태에서의 배우자나 이성친구에게 폭행했다는 보고가 자주 있어 왔고 그것은 몇몇의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다(Hoffman, Demo, Edwards, 1994; Kantor, 1993). 알코올은 행동 억제 능력을 약하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단서를 해석하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bby, Ross, McDuffie, 1995). 그러나 이런 생리적 효과에 근거하여 음주와 폭력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Miczek 등(1994) 여러 학자들은 이런 알코올의 생물학적 효과로서 대인관계에서의 폭력 행동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주와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어떤 연구(Cate, Henton, Koval, Christopher, & Lloyd, 1982; Foo & Margolin, 1995; O'Keefe, 1997)에서는 음주와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간의 관계가 발견되었으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음주가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서경현, 김봉진 등, 2001; 서경현, 이영자, 2001; Burcky, Reuterman, & Kopsky, 1988; O'Keefe, 1998). 한편,

그런 관계가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Coleman & Straus, 1983; Ray & Gold, 1996). 그리고 데이트 폭력은 일반적인 음주 양상과는 관계가 없고, 갈등 상황 그 시점에서의 음주가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Stets & Henderson, 1991; Tontodonato & Crew, 1992).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음주와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도 단순하지는 않은 듯 한데, 음주 여부와 같은 변인으로부터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를 검증하여 보았을 뿐 다양한 음주 변인들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성친구나 배우자에게 행하는 폭력과 음주와의 관계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음주와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력간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이유는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McDonald, 1994). 데이트 폭력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인 사회학습이론에서도 음주를 상황적 변인(situational variable)으로 설명하고 있다(Riggs & O'Leary, 1989). 이런 사회적 학습에는 사회적 환경 혹은 문화가 한 몫을 한다. 어떤 사회에서는 음주가 반사회적 행동을 해도 되는 기회로 제공되기도 한다(Gelles, 1974). 그러므로 그런 사회에서 남자들은 음주에 따른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에 취해 있을 때 폭력을 행한다. 예를 들어, 일부 아프리카 문화권에서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남성들이 음주를 여자친구나 아내를 때릴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다(Abrahams, Jewkes, & Laubscher, 1999). 한편, 한국 남성들끼리의 술자리에서도 “마누라와 북어는 이틀에 한번씩은 패야 한다”라는 식의 대화가 오래 전부터 오고 가

곤 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한국 사회가 허용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학습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폭력을 행할 경우 그 폭력에 대해서는 더 큰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한국 남성들이 음주를 폭력에 대한 면죄부로 생각하리라고 볼 수만은 없다. 서양과는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한국인들의 음주와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는 다를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그런 관계를 탐색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부 기독교 문화권 혹은 이슬람 문화권 등 음주에 대해 엄격한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보다 한국인들은 음주와 음주에 의한 역기능적인 행동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이런 양상은 특정 집단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술을 권하거나 이를 넘어서 음주를 강요하는 음주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한국 사회 전반에 보편화되어 있다. 서양의 여러 나라는 물론 한국에서도 음주 문화는 대학생들의 일부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그런 음주 문화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윤혜미, 2000; Rabow & Duncan-Schill, 1995). 실제로, 한국 대학생 음주율은 90%이상으로 전체 성인 음주율 68.4%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윤혜미, 2000에서 재인용). 서양에서도 대학생들의 음주가 문제화되고 있지만, 미국 대학생들의 음주율이 84-86% 정도 수준(Wechsler, Davenport, Dowdall, Moeykens, & Castillo, 1994; USDHHS, 1996)인 것을 감안할 때 한국 대학생들의 음주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대학생의 음주는 한번에 5 표준음주량 이상을 마시는 폭주(binge drinking) 형태인 경우가 많은데(Wechsler, 1996), 이런 폭주는 폭력, 범죄 등 일탈 행위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서양에서나 한국에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이 음주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서경현, 2001; Levy, 1990), 대인관계를 위해 사교적으로 음주(socially drinking)하는 수준이 아닌 폭주(binge drinking) 혹은 문제를 일으킬 수준의 과음은 데이트 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데이트 폭력과 음주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색한 연구가 거의 없고, 음주가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음주 양상, 즉 평상시 음주 여부를 변인으로 채택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과음 혹은 폭주 등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음주와 데이트 폭력의 관계를 탐색해 볼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데이트 폭력 가해 여부에 따라 음주동기에 차이가 있는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의미 있는 결과를 얻게 되면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음주에 대한 가족력에는 직접적으로는 음주 행동의 생물학적 유전과 사회학습적 측면은 물론 간접적으로는 음주에 대한 문화적인 요인도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음주에 대한 가족력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를 탐색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음주와 데이트 폭력의 관계를 탐색해 보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연구자는 정기적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을 행하는 비율이 높은지를 검증하였고,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 여부에 따라 음주동기, 음주 가족력, 그리고 문제음주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음주와 배우자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Abrahams, et al., 1999; Coleman & Straus, 1983; Ray & Gold, 1996), 2(성별) × 2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 이원행렬을 통해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한 대학의 남녀 대학생 440명(남학생 184명, 여학생 256)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총 632명의 대학생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할 수 있었으나 200여명으로부터 얻은 자료는 데이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거나 불완전하여 우선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참여자들의 연령 분포는 17세에서 30세였으며, 연령 평균은 20.08(SD=1.89)세 이었다. 피험자들이 설문지와 검사지에 응답하기 전에 본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이며,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알렸다. 각 참여자들이 설문에 소비한 시간은 15분 정도였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을 사용하였다. 서양의 경우에는 면접을 병행하여 조사한 연구들도 있었고,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식 중에 면접과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얻은 정보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연구자도 미국에서는 면접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해 보았고 한국에서도 시도해 보았으나, 연구자는 한국인들은 과거 이성을 사귀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사실을 타인과 대면하여 밝히는 것을 특히 꺼리는 것을 깨닫고 익명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에 응답하게 하는 방식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통계분석은 교차분석(χ^2 검증)과 t검증, 그리고 음주동기, 문제음주 및 음

주 가족력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2(성별: 남/여) × 2(데이트 폭력 경험: 가해경험 있음/가해경험 없음) 이원변량분석이었다. 본 연구를 위한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0.0 for Windows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사 도구

갈등책략 척도

한국어로 번안된 Straus의 갈등책략척도(Conflict Tactics Scales, 1979)가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본 척도는 자신이 갈등 상황에서 이성친구에게 사용했던 책략(20문항), 이성친구가 갈등상황에서 자신에게 사용했던 책략(20문항)이 측정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없다', 2--'한 번', 3--'두 번에서 세 번', 4--'네 번에서 다섯 번', 5--'여섯 번 이상'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11번에서 20번까지가 신체적 공격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갈등상황에서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어떤 것을 던졌다', '떠밀거나 잡거나 찼다', '손바닥으로 때렸다', '발로 차거나 이로 물거나 주먹으로 쳤다', '어떤 것으로 때렸거나 때리려고 했다', '심하게 구타했다', '칼 혹은 다른 무기로 위협했다', '칼 혹은 다른 무기를 사용했다', '성적 행동을 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성행위를 하려고 시도했다'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의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는 10문항의 Cronbach alpha값은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이 .87이었다.

음주 동기 설문지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음주 동기를 측정

하기 위해 신행우(1988)가 제작한 음주 동기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음주 동기 척도는 Cox와 Klinger(1988)의 음주 동기 분류 모형에 따라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한 언어보고 자료분석(verbal protocol analysis) 결과와 Cooper(1994)의 동조동기 문항에 기초하여 제작된 것이다. Cox와 Klinger(1990)는 음주 동기를 결과의 방향성과 근원의 소재(locus)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들은 결과의 방향성 차원에서는 음주가 정적 강화 혹은 부적 강화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 음주 동기를 분류하고, 근원의 소재 차원에서는 동기가 내부에서 생긴 것인가 외부에서 생긴 것인가에 따라 음주 동기를 분류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Cox와 Klinger(1990)는 내부에서 온 정적 강화 동기, 즉 긍정적인 기분이나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음주했다면 고양동기(enhancement motives)에 의해 술을 마신 것이고, 외부에서 온 정적 강화 동기, 즉 긍정적인 사회적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음주했다면 사교동기(social motives)에 의해 술을 마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내부에서 온 부적 강화 동기, 즉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제어하기 위해 음주했다면 대처동기(coping motives)에 의해 술을 마신 것이고, 외부에서 온 부적 강화 동기, 즉 사회적 비난이나 타인의 거부를 피하기 위해 음주했다면 동조동기(conformity motives)에 의해 술을 마신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후 Cooper(1994)는 Cox와 Klinger의 음주동기 분류에 따라 4요인 음주 동기 모형을 설정하고, 요인 분석을 통해 모형의 이론적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본 척도는 고양동기, 대처동기, 동조동기 및 사교동기 네 가지 음주 동기를 측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음주 동기는 4개 문항으로 총 16문항이고, 각 문항은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사교동

기 .90, 고양동기 .84, 동조동기 .83, 대처동기 .94 이었다.

문제음주 척도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문제음주를 측정하기 위해서 WHO에서 개발한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검사를 사용하였다(Babor, De la Fuente, Saunders, & Grant, 1989). 알코올 관련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선별하기 위해 개발된 이 척도는 높은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척도는 5점 평정척도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5점 평정척도는 가장 낮은 수준의 문제음주를 0점, 가장 높은 수준의 문제음주는 4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음주의 하위변인은 위험음주(hazardous drinking: 3문항), 의존음주(dependent drinking: 3문항), 유해음주(harmful drinking: 4문항)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위험음주 하위척도는 음주 횟수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의존음주 하위척도는 술을 끊기 힘든 정도와 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해음주 하위척도는 음주로 인한 사고나 피해에 대해 묻는 질문들과 술을 끊으라는 권고를 받은 경험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음주의 심각성은 유해음주, 의존음주, 위험음주 순이다. 각각 위험음주, 의존음주, 유해음주의 Cronbach α 값은 .84, .71, .73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일관도 계수(Cronbach α)는 .86 이었다.

음주 가족력 목록

연구의 목적에 따라 대상자들의 음주 가족력을 측정하기 위해 Adesso, McGuire, Norberg, 서경현, Weiss, 및 Schiller(1999)가 작성한 목록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목록은 부모를 포함하여 조

부모와 외조부모의 음주력을 묻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0-‘전혀 마시지 않는다(않았다)’, 1-‘경우에 따라서 아주 어찌다가 한번씩 마신다(마셨다)’, 2-‘사교적인 목적으로 조금 마신다(마셨다)’, 3-‘사교적인 목적으로 조금 많이 마신다(마셨다)’, 4-‘사교적인 목적으로 아주 많이 마신다(마셨다)’, 5-‘문제음주자이다(이었다)’, 6-‘알코올 중독자이다(이었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결 과

음주 습관의 성차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음주 습관의 성차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술을 마시는 횟수에 있어서 남녀 대학생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chi^2=33.38$, $p<.001$. 여학생들 중에 58.6%가 한 달에 한 두 번 술을 마시는데 반해, 남학생들 중에는 38.0%가 한 달에 한 두 번씩 술을 마신다고 보고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여학생 중에 2.3%만이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반면에, 남학생의 12.5%가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한번에 마시는 술의 양에 대한 질문에도 남녀 대학생들이 서로 다르게 응답했다, $\chi^2=49.73$, $p<.001$. 술을 마셔 온 여학생의 67.2%가 한번에 맥주 1000cc 이하 혹은 소주 반병 이하의 술을 마시는 반면에, 66.1%의 남학생들이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맥주 1000cc-2000cc 이상 혹은 소주 한 병 이상의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여학생의 8.5%가 술을 마시게 되면 많이 취할 때까지 계속 술을 마신다고 보고했으나 남학생

표 1. 남녀 대상자들의 음주 습관

변 인	남성(%)	여성(%)	χ^2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시는가?	(n=184)	(n=256)	
전혀 마시지 않는다	10.3	12.5	33.38***
한 달에 1-2번	38.0	58.6	
일 주일에 1-2번	29.9	22.7	
일 주일에 3-4번	9.2	3.9	
거의 매일	12.5	2.3	
한번 마실 때 평균 음주량	(n=165)	(n=223)	
맥주 혹은 소주 1-2잔	13.3	29.1	49.73***
맥주 500-1000cc 혹은 소주 반 병	20.6	38.1	
맥주 1000-2000cc 혹은 소주 한 병	37.0	24.2	
많이 취할 때까지 계속	29.1	8.5	
술을 마셔온 기간	(n=165)	(n=223)	
얼마 전부터	8.5	15.7	12.83*
약 6개월 전부터	6.7	11.2	
약 1년 전부터	17.6	22.9	
2-3년 전 혹은 그 이전부터	67.3	50.2	

* p < .05, *** p < .001.

들 중에는 무려 29.1%가 많이 취할 때까지 계속 술을 마신다고 보고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가를 묻는 질문에도 남자 대학생들과 여자 대학생들은 다르게 응답했다, $\chi^2=12.83, p<.05$. 표 1에도 나타나 있듯이, 남학생들이 오래 전부터 음주를 해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음주와 데이트 폭력

음주 여부에 따라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주일에 한번

표 2. 일주일에 한번 이상에 음주하는 여부에 따른 데이트 폭력 가해

변 인	일주일에 한번 미만 음주(n=271)		일주일에 한번 이상 음주(n=169)		t
	M	SD	M	SD	
데이트 폭력 가해	11.88	4.71	13.69	6.69	3.45**
데이트 폭력 가해 여부	없음(%)	있음(%)	없음(%)	있음(%)	χ^2
	70.5	29.5	58.0	42.0	7.21**

** p < .01.

이상 음주하는 대학생과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
 간에 데이트 폭력 가해 수준과 데이트 폭력 가
 해 경험 여부의 차이를 검증해 보았다. 표 2에서
 도 볼 수 있듯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
 시는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보다 데
 이트 폭력 가해 수준이 높고($t(438)=3.45, p<.01$),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chi^2=7.21, p<.01$. 일주일에 한번 미만으로 음주하
 는 대학생의 29.5%가 한번 이상 데이트 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음주하는 대학생의 42%가 데이트 폭력
 을 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과 데이트 폭력 경험, 그리고 음주동기 사이
 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음주동기를 종속변
 인으로 하는 2(성별)× 2(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
 여부) 이원변량 분석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참고로, 분석에는 음주를 해 온 대학생들만이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모든 음주동기, 즉 사교
 동기($F(1,385)=7.39, p<.01$), 고양동기($F(1,385)=$
 $24.39, p<.001$), 동조동기($F(1,385)=16.53, p<.001$),
 대처동기($F(1,385)=16.24, p<.001$)에 성의 주효과
 가 있었으나, 데이트 폭력의 주효과는 대처동기
 에서만 나타났다, $F(1,385)=4.59, p<.05$. 남성이
 여성보다 모든 음주동기가 높았는데, 이것은 남
 학생이 여학생보다 음주에 더 동기화가 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표 3 참고).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은 데
 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보다 음주
 에 대한 대처동기(coping motives)가 높았다. 이런
 결과는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음주를 데이트 관계에서의 갈등 상황에 대한 대
 처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과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에 따라 문제음주
 와 음주 가족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

표 3. 성별 및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별 음주동기의
 평균, 표준편차

성별	종속변인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 없음 가해경험 있음	
		M(SD)	M(SD)
		n=118	n=47
남	사교동기	12.55(4.13)	13.11(3.89)
	고양동기	10.34(4.05)	10.77(3.78)
	동조동기	9.07(3.77)	10.32(3.90)
	대처동기	10.92(4.90)	12.75(4.49)
		n=129	n=95
여	사교동기	11.57(3.03)	11.94(3.52)
	고양동기	8.58(3.27)	8.61(3.41)
	동조동기	8.20(3.07)	8.19(2.90)
	대처동기	9.76(3.92)	10.01(4.37)

하여 문제음주와 음주 가족력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2(성별)× 2(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 여부)
 이원변량 분석을 실행하였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문제음주 하위변
 인, 즉 위험음주($F(1,436)=36.43, p<.001$), 의존음
 주($F(1,436)=44.85, p<.001$), 유해음주($F(1,436)=34.77,$
 $p<.001$)에 성의 주효과가 있었지만, 예상대로 음
 주 가족력에는 성의 주효과가 없었다, $F(1,436)=$
 $.33, n.s.$ 이 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문제
 음주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고).

한편, 모든 문제음주 하위변인, 즉 위험음주
 ($F(1,436)=9.17, p<.01$), 의존음주($F(1,436)=32.72,$
 $p<.001$), 유해음주($F(1,436)=21.75, p<.001$)는 물론
 음주 가족력($F(1,436)=8.73, p<.01$)에도 데이트 폭
 력 경험 여부의 주효과가 발견되었다. 데이트 폭
 력 가해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문제음주를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음주에 대한 가족력이 더 있

표 4. 성별 및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에 따른 음주동기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지승화	자유도	평균 지승화	F
사교동기	성(A)	96.65	1	96.65	7.39**
	가해 경험(B)	17.87	1	17.87	1.37
	A × B	.71	1	.71	.05
	오차	5036.97	385	13.08	
	전체	62491.00	389		
고양동기	성(A)	318.80	1	318.80	24.39***
	가해 경험(B)	4.33	1	4.33	.33
	A × B	3.30	1	3.30	.25
	오차	5032.85	385	13.07	
	전체	39637.00	389		
동조동기	성(A)	186.88	1	186.88	16.53***
	가해 경험(B)	31.98	1	31.98	2.83
	A × B	33.24	1	33.24	2.94
	오차	4353.02	385	11.31	
	전체	51022.00	389		
대처동기	성(A)	316.39	1	316.39	16.24***
	가해 경험(B)	89.37	1	89.37	4.59*
	A × B	51.33	1	51.33	2.64
	오차	7499.79	385	19.48	
	전체	51022.00	389		

* $p < .05$, ** $p < .01$, *** $p < .001$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음주 중에 의존음주($F(1,436)=10.55$, $p < .01$)와 유해음주($F(1,436)=4.62$, $p < .05$)에는 성별과 데이트 폭력 경험의 유의한 이원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다. 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의 경우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학생의 의존음주 수준($M=3.33$, $SD=2.06$)과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의존음주 수준($M=3.98$,

$SD=1.98$)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F(1,254)=6.28$, $p=.013$), 남학생 경우에는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학생의 의존음주 수준($M=4.24$, $SD=2.59$)과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의존음주 수준($M=6.59$, $SD=4.05$)에는 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F(1,182)=21.59$, $p=.000$ (그림 1 참고). 그리고 유해음주 경우에도 여학생의 경우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학생의 유해음주 수준($M=4.26, SD=2.39$)과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의존음주 수준($M=4.99, SD=2.12$)에는 차이가 있었지만($F(1,254)=6.26, p=.013$), 남학생 경우에는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학생의 유해음주 수준($M=5.35, SD=3.03$)과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의존음주 수준($M=7.33, SD=4.03$)에는 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F(1,182)=12.76, p=.000$ (그림 2 참고).

표 5. 성별 및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별 문제음주와 음주 가족력의 평균, 표준편차

성별	종속변인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	
		가해경험 없음	가해경험 있음
		$M(SD)$	$M(SD)$
		$n=135$	$n=49$
남	위험음주	8.80(4.41)	10.14(4.02)
	의존음주	4.24(2.58)	6.59(4.05)
	유해음주	5.35(3.03)	7.33(4.03)
	음주 가족력	7.03(3.96)	8.74(4.72)
		$n=154$	$n=102$
여	위험음주	6.40(3.83)	7.56(3.32)
	의존음주	3.33(2.06)	3.98(1.98)
	유해음주	4.26(2.39)	4.99(2.12)
	음주 가족력	7.10(4.23)	8.74(4.72)

표 6. 성별 및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에 따른 문제음주와 음주 가족력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종속변인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위험음주	성(A)	562.53	1	562.53	36.43***
	가해 경험(B)	141.58	1	141.58	9.17**
	A × B	.79	1	.79	.05
	오차	6731.79	436	15.44	
	전체	34368.00	440		
의존음주	성(A)	280.45	1	280.49	44.85***
	가해 경험(B)	204.57	1	204.57	32.72***
	A × B	65.94	1	65.94	10.55**
	오차	2726.32	436	6.25	
	전체	10604.00	440		
유해음주	성(A)	265.88	1	265.88	34.77***
	가해 경험(B)	166.34	1	166.34	21.75***
	A × B	35.30	1	35.30	4.62*
	오차	3334.01	436	7.65	
	전체	15160.00	440		
가족 음주력	성(A)	7.06	1	7.06	.33
	가해 경험(B)	184.54	1	184.54	8.73**
	A × B	4.05	1	4.05	.19
	오차	9220.34	436	21.15	
	전체	34763.00	44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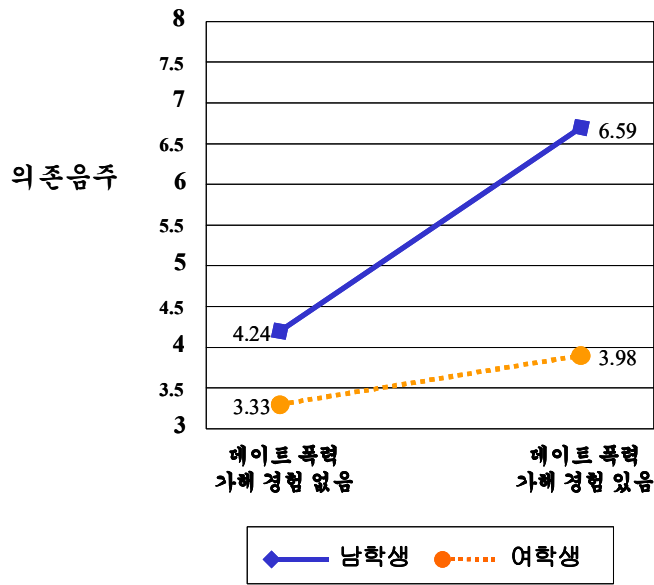


그림 1.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별 남녀 대학생의 의존 음주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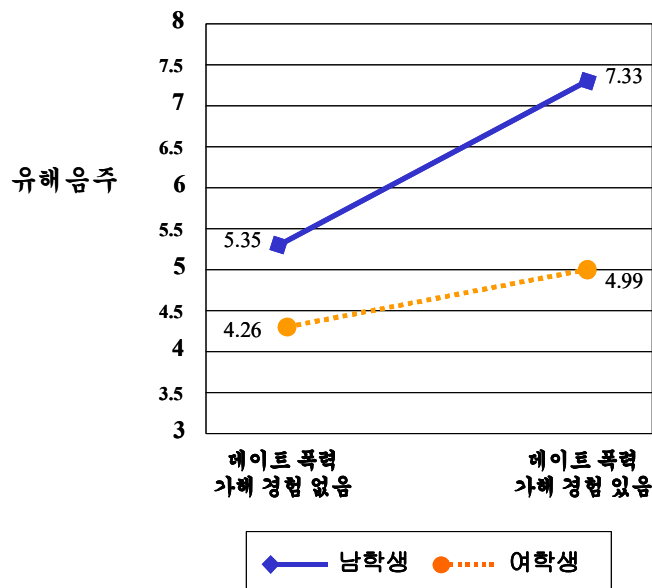


그림 2.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별 남녀 대학생의 유해 음주 차이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음주와 데이트 폭력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음주하는 대학생들이 데이트 폭력을 행하는 비율이 높은지, 데이트 폭력가해 여부에 따라 음주동기, 음주 가족력, 그리고 문제음주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목적이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의 성차를 검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이 한 것으로 보고한 것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와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이 점에 대해 먼저 언급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데이트 도중 상대방에게 신체적 폭력을 더 많이 행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남학생과 여학생은 데이트 폭력의 경험을 묻는 자기보고식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자 대학생들보다 더 많은 여자 대학생들이 데이트 도중에 갈등 상황이 생기면 신체적인 공격을 사용했다고 보고한 것이 실제 한국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 비율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가 하면 서양의 경우에는 면접을 병행하여 조사한 연구들도 있었는데, 그런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행동에 남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olidor & Tolman, 1998).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에서 남성들이 데이트 폭력을 더 많이 행한다는 결과를 얻은 적은 없었다. 그와 반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을 더 많이 행한다는 결과를 얻은 연구가 여러 번 있었다(Foshee, 1996; Plass & Gessner, 1983). 하지만, Archer(2000)는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여성의 데이트 폭력보다 남성의 데이트 폭력이 질적

으로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런 양적인 결과를 통해서 데이트 폭력의 질적인 면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지만, 필자가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심각한 피해자는 대개 여성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여학생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은 데이트 폭력 피해에 대한 반응일지도 모른다(O'Keefe, 1997).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음주 습관에는 성차가 있었다. 정기적으로 음주하는 횟수와 한번 마시는 술의 양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이 더 자주 술을 마시고 한번 술을 마실 때 더 많은 양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일련의 선행연구(윤희미, 2000; Dawson & Archer, 1992, Neavins, Adesso, & 서경현, 2000)와 일관된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원변량분석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음주에 더 동기화가 되어 있고, 위험음주, 의존음주, 유해음주 등 문제음주를 더 많이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최근 한 연구(Enekwechi, 2001)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음주를 더 많이 할 뿐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 강한 음주 동기를 가지고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Wechsler(1996)는 한번에 5 표준음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면 폭주(binge drinking)로 간주하였다. 참고로 1 표준 음주량은 알코올 10g, 즉 소주 한 잔 정도 혹은 맥주 285cc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주 다섯 잔 이상 혹은 맥주 1500cc 정도를 마셨다면 5 표준음주량 이상을 마셨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들 중에는 66%이상이 폭주하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33%만이 폭주한다고 보고했다. 게다가 남성은 여성보다 더 오랫동안 음주해 왔고 더 자주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음주 규범, 특히 남성의 음주 규범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도 있으나(이미형, 2000),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를 얻었다는 것도 감안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Dawson & Archer, 1992, Enekeuchi, 2001; Neavins et. al., 2000).

일주일에 한번 이상 음주하는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보다 데이트 폭력을 측정하는 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고, 데이트 폭력을 행한 경험도 더 많았다. 일련의 선행연구(서경현, 김봉진 등, 2001; 서경현, 이영자, 2001; Burcky, Reuterman, & Kopsky, 1988; O'Keeffe, 1998)에서는 음주를 정기적으로 하는가의 여부를 변인으로 채택하였거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음주가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학습이론과 음주와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Cate, Henton, Koval, Christopher, & Lloyd, 1982; Foo & Margolin, 1995; O'Keeffe, 1997)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다른 음주동기에 차이가 없었으나 대처동기(coping motives)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음주에 대한 대처동기가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의 그것보다 높았다. 다시 말해, 이것은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을 하는 한국 대학생들은 음주를 이성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대처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Gelles(1974)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음주가 반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행동 억제를 약하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사회적 단서를 해석하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알코올의 생리적 작용의 영향도 있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실험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설

명할 수는 없다.

본 연구를 통해서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보다 문제음주, 즉 위험음주, 의존음주, 유해음주 수준이 현저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과음 혹은 폭주를 하는 경우에는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남성 참여자들 중에 66%정도가 자신이 폭주하는 것으로 보고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대학생들이 주로 데이트를 할 연령이고 과음과 폭주하는 비율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런데, 의존음주와 유해음주에는 성별과 데이트 폭력 가해 여부의 유의한 이원 상호작용이 발견되었고, 데이트 폭력 가해 여부에 따른 의존음주 혹은 유해음주의 차이는 남성에게서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음주와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가 남성에게만 존재한다고 나타난 선행 연구 결과들(Coleman & Straus, 1983; Ray & Gold, 1996)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여성일 경우에도 문제음주를 하는 사람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지만, 남성이 문제음주를 하면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Molidor와 Tolman(1998)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은 적이 있다.

게다가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보다 음주에 대한 가족력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데이트 폭력이 음주와 관련하여 생물학적 유전과 사회학습적 측면은 물론 간접적으로는 음주에 대한 문화적인 요인과도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암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결

과는 데이트 폭력의 예방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세계적으로 대학생들은 과음과 폭주를 많이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Haberman, 1994). 예를 들어, 미국 대학생들의 캠퍼스 음주와 폭음 문제는 사회문제로 주목받아 왔고, 그들의 음주율은 약 85%로 다른 연령 집단과 비교하여 매우 높다(USDHHS, 1996). 그런데, 한국 대학생들의 폭음의 심각성도 이미 알려진바 있으며(윤혜미, 2000), 음주율은 90%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이런 것이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1996년부터 질병조절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그 외 다른 기관에서도 데이트 폭력 중재 및 예방 프로그램들이 실시하고 있으며,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Weisz & Black, 2001)도 발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데이트 폭력 중재 및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면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일회성 연구로 결론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추후연구를 통해 재확증해야 하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중재 및 예방 프로그램과 함께 문제음주 중재 프로그램이 함께 병행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듯하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가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을 단순히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이 선행된 피해 행동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 비율에 성차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정보를 얻는데 면접이나 자기보고식 설문지 방식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연구 방법에서 설명하였듯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보를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얻었다는 것이다. 한

국에서는 데이트 폭력 경험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면접보다 자기보고식 설문지가 더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지만, 아무튼 참여자들의 데이트 폭력 경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었다고는 할 수 없다. 셋째, 수도권이라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 대학생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한계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음주 행동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 중재와 추후연구를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의 음주행동과 음주동기가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탐색하려고 하였지만, 앞으로 음주 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과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추후연구들이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탐색적인 연구를 통해 음주와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 그리고 성별 같은 조절변인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유전자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을 포함해서 사회학습적 요인 및 상황적 요인들이 포함된 음주-데이트 폭력 모형을 만드는 추후연구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여러 요인들을 특성(trait) 변인들과 상황(state) 변인들로 나누어 음주와 데이트 폭력에 작용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서경현 (2001). 이성을 사귀면서도 폭력을 행사하는가? 삼육대학교 학생생활 연구, 5, 91-104.
- 서경현 (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

- 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 1-15.
-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대학생들의 연애평력과 예측변인. 대한여성건강학회지, 2, 75-98.
- 서경현, 이경순 (2002). 데이트 폭력 경험자들의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 353-369.
- 서경현, 이영자 (2001). 고등학생들의 연애평력의 예측변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 91-106.
- 윤혜미 (2000). 대학생 음주행동과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총, 3, 1-15.
- 이미형 (2000). 알코올, 끝없는 사랑-직장인 문제를 주예방 안내서, 서울: 이미형 알코올 상담실.
- 중앙일보(2001, 9, 14). 데이트 폭력이 늘고 있다. 50면.
- Abby, A., Ross, L. T., & McDuffie, D. (1995). Alcohol's role in sexual assault. R. R. Watson. (Eds.) Drug and alcohol reviews, Vol. 5: addictive behaviors in women. Totowa: Humana Press.
- Abrahams, N., Jewkes, R., & Laubscher, R. (1999). I don't believe in democracy in the home: men's relationships with and abuse of women. Cape Town: MRC Technical Report.
- Adesso, V. J., McGuire, T. P., Norberg, M. M., Suh, K. H., Weiss, J., & Schiller, A. (1999). Predicting Dating Violence: Attitudes and Family Alcohol Use and Violence. Presentation at the 108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Archer, J. (200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partner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6, 651-680.
- Babor, T. F., De la Fuente, J. R., Saunders, J., and Grant, M. (1989). *AUDIT-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Guidelines for Use in Primary Health Care*. World Health Organization, Division of Mental Health, Geneva.
- Burcky, W., Reuterma, N., & Kopsky, S. (1988).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School Counselor*, 35, 353-358.
- Cate, R. M., Henton, L., Koval, J., Christopher, F. S., & Lloyd, S. (1982). Premarital abus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3, 79-90.
- Charkow, W. B., & Nelson, E. S. (2000). Relationship Dependency, Dating Violence, and Scripts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3, 17-28.
- Coleman, D. H., & Straus, M. A. (1983). Alcohol abuse and family violence. In E. Gottheil, K. A. Druley, T. E. Skoloda, & H. M. Waxman (eds.), *Alcohol, drug abuse, and aggression*,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Comins, C. A. (1984). Courtship violence: A recent study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Paper delivered at the Second National Conference for Family Violence Researchers*, Durham, NH. 7-10.
- Cooper, M. L. (1994). Motivation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 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6, 117-128.
- Cox, M., & Klinger, E. (1988).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168-180.
- Cox, M., & Klinger, E. (1990). Incentive motivation, affective change and alcohol use A model In M. Cox (Ed), *Why people drink?* New York:

- Gardner Press. 291-311.
- Dawson, D. A., & Archer, L. (1992). Gender effects in alcohol consumption: Effects of measurement.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7*, 119-123.
- Enekwechi, E. E. (1996). Gender differences in motivation for alcohol use among Nigeri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lcohol & Drug Education, 41*, 1-10.
- Famularo, R., Stone, K., Barnum, R., & Wharton, R. (1986). Alcoholism and severe child maltreat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6*, 482-485.
- Farrington, D. P. (1998). Predictors, causes, and correlates of male youth violence. M. Tonry, M. H. Moore. (Eds.) Youth violence (pp. 421-47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oo, L.,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 291-305.
- Foshee, V. (1996).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ating abuse prevalence, types, and injuries. *Health Education Research, 11*, 275-286.
- Foshee, V. A., Bauman, K. E., & Linder, G. F. (1999). Family violence and the perpetration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Examining social learning and social control process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331-343.
- Frieze, I. H., & Browne, A. (1989). Violence in Marriage. L. Ohlin, M. Tonry. (Eds.) Family violence (pp. 163-21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elles, R. J. (1974). The violent home. Beverley Hills: Sage.
- Haberman, S. E. (1994). A survey of alcohol and other drug use practice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lcohol and Drug Education, 39*, 85-100.
- Hamilton, C. J., & Collins, J. J. (1981). The role of alcohol in wife beating and child abuse: A review of the literature. J. J. Collins (Eds.) Drinking and crime(pp. 253-282).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offman, K. L., Demo, D. H., & Edwards, J. N. (1994). Physical wife abuse in a non-Western society: an integrated theoretical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6*, 131-146.
- Hotelling, G. T., & Sugarman, D. B. (1986). An analysis of risk markers in husband to wife violence: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Violence and Victims, 1*, 101-124.
- Jewkes, R. (2002). Intimate partner violence: cause and prevention. *The Lancet, 359*, 1423-1429.
- Kantor, G. K. (1993). Refining the brushstrokes in portraits on alcohol and wife assaults. S. Martin. (Eds.) Alcohol and interpersonal violence: fostering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pp. 281-290). Rockville: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 Kaufman, J., & Zigler, E. (1987). Do abused children become abusive par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186-192.
- McDonald, M. (1994). Gender, drink and drugs. Oxford: Berg Publishers, 14.
- MacMurray, V. D. (1979). The effect and nature of alcohol abuse in case of child neglect. *Victimology, 4*, 29-45.
- Miczek, K. A., BeBold, J. F., Haney, M., Tidey, J., Vivian, J., & Weerts, E. M. (1994). Alcohol, drugs of abuse, aggression and violence. A. J. Reiss, & J. A. Ross. (Eds.)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violence, Vol. 3: social influences(pp.

- 377-570). Washington: National Academy Press.
- Molidor, C. E., & Tolman, R. M. (1998). Gender and contextual factors in adolescent dating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an, 4*, 119-134.
- Neavins, T. M., Adesso, V. J., & Suh, K. H.: Predictors of Alcohol Consumption (2000). Tension-Reduction Expectancies, Gender, and Hardines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1), 1-9.
- Levy, B. (1990). Abusive teen dating relationship: An emerging issue for the 1990s. *Response, 13*, 3-12.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546-568.
- O'Keefe, M. (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 39-57.
- O'Keefe, M., Brockopp, K., & Chew, E. (1986). Teen dating violence. *Social Work, 31*, 456-468.
- Plass, M. S., & Gessner, J. C. (1983). Violence in courtship relations: A southern sample. *Free Inquiry in Creative Sociology, 11*, 198-202.
- Ray, A. L., & Gold, S. R. (1996). Gender roles, aggression, and alcohol use in the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ex Research, 33*, 47-56.
- Riggs, D. S., & O'Leary, K. (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An examination of a caus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 519-540.
- Riggs, D. S., O'Leary, K. D., & Breslin, F. C. (1990). Multiple predictors of physical aggression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 61-73.
- Rabow, J. & Duncan-Schill, M. (1995).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rug and Alcohol Education, 40*, 52-64.
- Stets, J. E., & Henderson, D. A. (1991). Contextual factors surrounding conflict resolution while dating: Results from a national study. *Family Relations, 40*, 29-36.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Tontodonato, P., & Crew, B. K. (1992). Dating violence, Social learning theory, and gender: A multivariate analysis. *Violence & Victims, 7*, 3-14.
- USDHHS. (1993). Eight special report to the U.S. Congress on Alcohol and Health. Washington, D.C.
- Wechsler, H. (1996). Alcohol and the American college campus-a report from the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Change, 28*, 2025-2060.
- Wechsler, H., Davenport, A., Dowdall, G., Moeykens, R. & Castillo, S. (1994). Health and behavior consequences of binge drinking in colleg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2*, 1672-1677.
- Weisz, A. N., & Black, B. M. (2001). Evaluating a sexual assault and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urban youths. *Social Work Research, 25*(2), 89-101.

1 차원고접수일 : 2003. 9. 4.
 최종원고접수일 : 2003. 10. 28.

Motivation for Alcohol Use, Problem Drinking, Family Alcohol Use and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Kyung Hyun Suh

Sahmyook University

The researcher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dating violence and drinking behaviors. Study participants included 440 Korean College students(184 males and 256 females) currently involved in heterosexual dating relationships. Participants' ages ranged from 17 to 30($M=20.08$, $SD=1.89$). Questionnaires and psychological tests used included: Straus' Conflict Tactics Scale,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AUDIT), Cooper's Revised Drinking Motives Questionnaire(DMQ), and Index of Family Alcohol Use. Research designs were 2(gender) \times 2(experience of inflicting dating violence), i.e. 2-way MANOVAs. Results suggest students who drink one or more times a week are more likely to commit acts of violence toward their dating partners than students drinking less often. The study revealed males tend to drink with higher social, enhancement, conformity and coping motives than females. The study also showed that students inflicting dating violence drank with higher coping motives than students who did not. Males showed more hazardous, dependent and harmful drinking patterns than females. Also, students who had inflicted dating violence showed a higher degree of these characteristics (hazardous, dependent and harmful drinking patterns) along with a greater family history of alcohol use than participants who had not inflicted dating violence. The findings showed significant 2-way interactions in dependent and harmful drinking patterns. Simple main effect analysis revealed that differences in dependent and harmful drinking patterns in males are more significant than the same differences in females.

key words : motivation for alcohol use, problem drinking, family alcohol use, dating violence